



창세기 42:1~17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

하나님 찬양하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새 365, 바-A)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경배와 찬양, A)

Focus |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고난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병원의 지하 병동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결핵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심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소녀를 돌보던 친척들은 그녀를 매사추세츠 주립 병원에 버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병원 한구석에 격리 수용된 소녀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사납게 굴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의사들이 소녀를 고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소녀 앞에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간호사는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소녀를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어두움이 서서히 걷히면서 사람과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소녀는 점점 회복되었고, 결국에는 정신 질환까지 치유되었습니다.

늙은 간호사의 헌신적인 사랑의 돌봄과 그녀가 전한 예수님으로 인해 소녀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졌고, 소녀는 자신과 같이 아프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소녀는 바로 시청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교육자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 헬렌 켈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Anne Sullivan Macy)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 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창세기 42:1~17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부 경험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애굽의 이인자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소설이나 나올 법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요셉의 신뢰이며,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나타난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큰 흉년이 끝나고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으로 인해 모든 지역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했지만, 애굽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흉년을 버틸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풍년 동안 풍족하게 지내며 곡물을 허비하는 대신 각 성에 곡물을 저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은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흉년을 겪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 배경이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정황은 어린 시절 요셉이 꿈 꾸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야곱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 오도록 아들들을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3~4절)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해설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의 가정도 7년 흉년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아주 풍족하게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 곡식을 구해 오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제외한 열 아들만 보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4절).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거짓말한 대로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의 공격으로 죽은 줄 아는 야곱은 베냐민 역시 그런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들짐승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열 아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열 아들이 요셉을 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요셉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잃게 될까 봐 그를 다른 아들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적용과 나눔 과거에 겪은 상처가 지금도 내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상처를 이겨 낸 경험이나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러한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약물 치료나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함께 간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2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요?(7~12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애굽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형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변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반면, 형들은 자신이 절하고 있는 대상이 오래전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에게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과거의 일은 잊고 싶은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때, 요셉은 과거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 열 개가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결국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짐으로 요셉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변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형들을 애굽을 염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합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을 증명할 방법을 요셉이 제시하는데, 바로 야곱의 집에 있는 막냇동생 베나민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내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나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다가도 불쑥불쑥의 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다가도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거나, 나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 혹은 그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상처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 낼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상황과 사람에게 향했던 원망의 시선을 선하고 아름답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받았던 상황이나,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선한 뜻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

라볼 때 우리는 상처와 고통을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경험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또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내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에 분노나 증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모든 상황을 섭리로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잘못을 그분의 방법대로 다루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통과 상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 두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상처와 아픔을 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 마음과 삶에 쌓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새로운 마음과 성숙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점자는 시각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인데,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해독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점자 교육과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2.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는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들을 투옥하는 등 기독교 박해가 심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온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몸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 42:9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함께 간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2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요?(7~12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애굽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형들이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변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반면, 형들은 자신이 절하고 있는 대상이 오래전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에게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과거의 일은 잊고 싶은 큰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때, 요셉은 과거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 열 개가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결국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짐으로 요셉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변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형들을 애굽을 엿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며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합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을 증명할 방법을 요셉이 제시하는데, 바로 야곱의 집에 있는 막냇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내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나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다가도 불쑥불쑥의 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거나,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거나, 나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 혹은 그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날 때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상처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 낼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상황과 사람에게 향했던 원망의 시선을 선하고 아름답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인정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받았던 상황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선한 뜻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

라볼 때 우리는 상처와 고통을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경험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또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내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에 분노나 증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모든 상황을 섭리로 이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의 잘못을 그분의 방법대로 다루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통과 상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 두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상처와 아픔을 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 마음과 삶에 쌓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새로운 마음과 성숙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점자는 시각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인데, 시각 장애인의 점자해독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점자 교육과 상용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2.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는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들을 투옥하는 등 기독교 박해가 심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곧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 42:9



창세기 45:1~15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

하나님 찬양하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425 단→D)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경배와 찬양, D)

Focus |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베푸실 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들이 없어도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3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가지고 하시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이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나 풀, 비와 가뭄, 결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번영과 빈곤,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섭리란 하나님이 크신 지혜로 만드신 일반 법칙(자연법칙 등)에 따라 계획하신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 섭리란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반 법칙을 초월하거나 혹은 역행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삶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느낀 적이 있나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창세기 45:1~15를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어린 시절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형들이 흉년을 견디지 못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만,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알 아보지 못하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이 막넛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

오자 요셉은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요셉의 은잔과 돈을 물레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은 후 그를 도둑으로 묶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도둑질한 베냐민만 희생시키면 다른 형제들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신이 대표로 벌을 받겠다고 하며,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긴 때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와 적발이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하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44:16). 이는 형제들이 과거 요셉에게 행한 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겸허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드러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히며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인가요?(3~5절)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으며 두려워 근심하는 형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해설 형들의 변화된 모습과 자신의 상처가 회복됨을 경험한 요셉은 더는 감정을 숨길 수 없어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곤란과 고통이 있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니 꿈이 실현된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흘리는 용서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지만, 형들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호령을 내리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 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과 그 동생이 애굽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칫 그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말입니다. 형들의 이 같은 마음을 알아차린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5절). 이 말에는 형들이 이전에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요셉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내게 상처 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 후에 일어난 변화를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누군가에게 의 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상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픔의 크기가 크고 상처의 깊이가 깊기 때문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을 놓아 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용

서의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놓아준다는 생각만 하기에 마치 용서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인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훨씬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용서의 본을 보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2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누구며, 자신이 어떤 이유로 애굽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나요?(7~8절)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형들보다 앞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해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힌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5절).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사람의 생각과 그 어떤 행동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형들의 생각 이전에 구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7절).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목적이 큰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의 미의 구원입니다. 첫째,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가족들이 풍족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일을 시작으로 훗날 출애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람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운행하시는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은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으로 준비되고 사용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인간의 지혜와 경륜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잠시 앞일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이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다지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악행조차 ‘생명 보존’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깨달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상처까지 사 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또한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뒤집으 시며 그분의 주권과 권능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고통스러웠던 일들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는 피해 의식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수능을 치르는 이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2. 치안이 열악한 아이티에는 갠단의 영역 다툼이 거셉니다. 총격과 방화 등 폭력으로 위협하는 이들의 악이 끊어지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5



창세기 47:1~12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찬양하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310, 찬-0) 내 평생 사는 동안 (경배와 찬양 D)

Focus | 성도는 자신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1980년대에 작사 작곡되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주인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폐결핵을 앓는 아버지를 돌보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매번 도우만 간구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 것도 어색해하던 분위였기에 이 찬양은 잘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원작자의 친구가 합창단에서 부를 노래로 이 곡을 받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작자 미상의 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원작자는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가 나오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이웃의 인도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품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의 원곡자는 박성호 집사입니다. 그는 이제 교회 음악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변함없는 손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던 시간은 언제인가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창세기 47:1~1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야곱 일행이 이주한 애굽은 고대 근동 문명의 중심지요 강대국으로, 외적의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또한 야곱 집안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 왕 바로의 허락으로 정착하게 된 고센 지역은 라암셋이라고도 불리는 이집트 북쪽 니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땅으로, 람세스 2세 시대에 남쪽에 있는 테베에 이어 애굽의 두 번째 수도가 될 만큼 기후와 환경이 좋았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방어하기에 유리하고, 목축을 위한 초지가 풍부해 야곱 일행이 정착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중하게 여겼기에 이 지역에는 사람이 적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걸어서 이틀 정도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리적 특징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서 벗어나도록 애굽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며 400년 후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출애굽의 배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요셉이 형 다섯 명을 택해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이때 바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했고, 형들은 어떻게 대답했나요?(2~4절)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생업, 즉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목자라고 대답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설 가나안의 이방인 가족이 당시 강대국인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의 신임을 얻고 있으며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도록 바로가 초청했음에도(45:18) 살 곳을 얻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일을 진행하는데, 먼저 형 중에서 다섯 명을 택합니다. 이 다섯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지만,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쓸데없이 긴장감을 주지 않을 상품을 가진 인물들을 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 줍니다(46:33~34). 바로는 요셉의 예상대로 형들에게 생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직업을 목자로 밝히며, 양 떼를 칠 초지와 거류지를 찾아 이곳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넉지시 고센 땅을 이야기하며 그 땅에 거류하기를 청합니다(4절). 이는 바로의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로는 흔쾌히 허락하며 왕의 가족도 관리하도록 맡깁니다(6절). 목축을 가중치 여기는 애굽 문화와 바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과 결정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시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일상의 문제 앞에서 내게 지혜를 주시거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요셉은 바로가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를 데려오도록 초청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가족이 목축을 유지하면서 정착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요셉의 믿음과 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은 애굽 중에서도 가장 환경

이 좋은 곳에 정착해 기근 중에도 어렵지 않게 일가를 보존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조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순종할 길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찬양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관찰과 묵상 2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은 바로에게 무엇을 했나요?(7~10절)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해설 요셉이 형들 다음으로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 바로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왕을 향한 경하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상대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 약속(12:2~3)을 상속한 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실제적인 축복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상과 그의 축복에 감동한 바로는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묻습니다(8절). 이 역시 단순히 몇 살인지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 스토리와 교훈을 듣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지만, 조상의 나그넷길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짧은 날 이기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겸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협약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에서 와의 갈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은 고생, 이후 가나안 땅에서 쫓겨 다녔던 시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 등 질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가나안 땅의 평범한 늙은 목자가 당시 최강국의 왕을 만나 인생의 깊이를 드러내며 축복하는 모습은 한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적용과 나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 내가 축복하며 기도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 줍니다. 한 민족의 역사와 성경 속 수많은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28:13~15).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만, 여러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인생 말년에 바로를 축복하는 선지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이를 증거하는 사명의 길에 서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체형적인 지식을 우리 삶에 선물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뢰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패턴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은 은혜입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그분의 광대하신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첫째, 목축하기에 적당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심으로 후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위한 배경을 만드십니다. 둘째, 130세가 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게 하심으로써 한 개인의 삶에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에게 그분의 신실하심과 광대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세상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나누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2. 몽골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23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몽골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을 새기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협약한 세월을 보내었나니 히고" 창 47:9



온전한 용서, 온전한 믿음

창세기 50:15~26

하나님 찬양하기

이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도 (새 93, A~G) 모든 상황 속에서 (경배와 찬양 G)

Focus |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마음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후임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간 사역한 R. T. 켄달 목사에게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내용으로 책을 한 권 집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켄달 목사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러다가 문득 수십 년 전에 박사 학위를 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도교수는 그에게 "절대로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말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에 집중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영국에서 사역했고,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사역과 설교를 우선 시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족을 우선시하면서 설교와 사역을 감당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것이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을 우선으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명령을 통해 많은 회복과 치유를 행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또한 택하신 백성이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삶에서 타인이나 혹은 나 자신을 용서한 경험이 있나요?

말씀열기

본문 읽기 창세기 50:15~26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50장은 1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 특히 그 주인공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한 개인의 생애를 매듭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시대를 지나 다음 시대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들을 보여 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

과 요셉의 죽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명확하게 연결하는데, 이는 400년 후 출애굽할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주연으로 택함을 받았고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어받은 약속의 민족임을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가족을 돌보기로 확인하는 장면은 형들과의 마지막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 주는 요셉답게 용서와 화해, 실제적인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 개인의 종말을 통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 주는 동시에, 다음 세대의 출애굽 사건과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전히 계속됨을 보여 주는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복수를 염려한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자, 요셉은 어떻게 말했나요?(19~21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해설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 후 요셉의 형들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죄악에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방해 삼아 혹시 남아 있는지 모르는 요셉의 복수심을 달래려고 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이 유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형제간의 화목을 강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더 나아가 형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하며 그들이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임을 강조합니다(17절). 형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말하자 요셉은 읊니다. 이어서 형들은 다 같이 요셉 앞에 와서 앞드리며 용서에 대한 마지막 근거로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18절). 요셉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며 형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까지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형들과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19~20절). 요셉의 용서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요셉의 '간곡한(히브리어의 의미는 '심장 깊이 스며드는, 감동 있는') 고백을 통해 형들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위로'를 받습니다(21절).

적용과 나눔 복수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풀는 용서를 하려면, 나의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할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창세기에서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히 형들에게 베푼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줍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부작위한 행태가 아닙니다. 형들이 복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민 손길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만큼 마음으로 완전히 그들을 받아들인 용서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을 마음 깊이 위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며 온전한 연합을 약속하는 완전한 화해를 약속합니다. 이렇듯 요셉이 형들을 참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으며, 그 은혜의 결과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세워졌음을 용서를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비결을 묵상하고 붙잡을 때 우리도 온전한 용서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2 요셉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맹세하며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24~25절)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때(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골을 메고 고향 땅으로 올라가도록 부탁했습니다.

해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의 시신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함께 가지고 올라가 묻어 주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형제들의 가족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요셉이 자기 뼈를 위해 명령했다고 말합니다(히 11:22). 요셉의 유언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하는 창세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의 유언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하나의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자 몸에 향 재료를 넣어 입관해 잘 보관했다가, 훗날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의 유골을 챙겨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출 13:19).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실현이었고,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 줍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좌절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으로 인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수한 번성에 관한 언약이 성취되기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신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

속,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용서와 믿음의 온전함을 강조합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들을 품고 위로하는 요셉을 통해, 온전한 용서는 상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 역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성도는 믿음과 용서의 삶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위로하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 안에서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TIP 이렇게 구원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용서해야 할 사람을 주저 없이 온전히 용서하며, 그를 품고 축복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넓혀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 함께 기도하기**
1.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의 위협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 소통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지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땅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생명의 삶』 171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